

# 국힘 혁신위, 청년 비례 50% 할당·우세지역 배정 의결

###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시간두고 당에 공식 요구할 것” 김기현 불출마 권고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9일 의결했다.

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최안나 혁신위원이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 50% 할당 제안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혁신위원은 “(선거철) 들러리, 이미지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디딤돌 세대 교체를 위해서 당이 확실히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서울·강남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앞서 영남 중진 용퇴론, 하위 평가 20% 공천 배제 등을 제시한 것과도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혁신위원은 “구체적 지역구 선정,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혁신위는 여성의 경우 이미 당헌·당규로 지

역구(30%)·비례대표(50%) 할당을 규정하고 있어 공천 배려 건의안에 여성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르면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 청년 비례 50% 할당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정치인 희생’을 1·2호 안건으로 건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3호 안건의 슬로건을 ‘청년이 미래다’로 명명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38선 위(북한)의 이야기가 아닌가 착각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번에 와서 진정으로 깊이 이해했다”고 3호 안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오는 14일 제주도를 찾아 4·3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남 예정이다.

김기현 혁신위원은 제주 방문 취지에 대해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대표는 이날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 권고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 잘 한번 보조”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입장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느냐”라는 질문 등이 계속 이어지자 “분회의에 빨리 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혁신위는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혁신위원들에 대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현직 출마를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기현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34%...2주만에 2%p 상승

### NBS...국힘 31%·민주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60%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각각 2%포인트(p)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 부정 5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4%였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보다 1%p 올랐

고, 민주당은 3%p 내렸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9%로 조사됐다. 2주 전과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과 견제론 모두 2%p씩 상승했다.

여당이 서울 인근 도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처리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힘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철회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징구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장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 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시대전환 흡수 합당 결의안’ 의결

국민의힘이 9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시대전환의 현역 의원은 조 의원 1명이다. 이날 합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821명 중 5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22명, 반대 25명으로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조정훈 의원에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조 의원은 “당에 들어가 매기의 역할을 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합당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시대전환은 지난 7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그간 ‘범야권 인사’로 분류됐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공개 반대하며 현 여권과 가까워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국위 인사말에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우리당이 중도층으로부터도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의 기본은 연대와 포용으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게 정치라는 점에서 목적과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JeollaNamp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